

# 1 진기명기 이명기



인천에서 나고 자라 프로야구 선수와 3할 타자의 꿈을 이룬 이명기였다. 한 번도 인천을 떠날 것으로 생각해본 적 없었기에 충격적인 트레이드 소식, 여기에 최형우와 김주찬, 나지완, 신종길, 김호령 등이 버티고 있던 KIA 아였다. 원래 자리인 좌익수가 아닌 우익수로 기회는 얻었지만 아찔한 포구 실수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기태 감독은 실수를 했던 그에게 다음 날 다시 우익수 겸 7번 타자라는 자리를 주었다. 이명기는 이후 생애 첫 그라운드 홈런을 터트리기도 하는 등 0.349의 타율로 김선빈, 최형우에 이어 타율 팀 내 3위이자 전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기는 매 타석 최선을 다해 치고, 달리면서 '뚝타자' 고민을 해결했다.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 과감했던 트레이드와 실수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고 배우라고 강조한 사령탑이 만든 최고의 뚝타자, 이명기다.

# 2 키플레이어 김주찬



김기태 감독의 애를 태운 김주찬이었다. 지난 시즌 생애 처음으로 20홈런 100타점을 올리며 KIA의 '해결사'로 활약했던 김주찬은 야구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뿔뿔 말 듯 좀처럼 풀리지 않던 공격이었다. '캡틴'이라는 중대한 임무까지 맡고 있던 김주찬을 위해 김 감독이 긴 인내의 시간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은 타자였다. 결국 2군에서 철저부심 반전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김주찬. 잔인한 봄을 지낸 그는 6·7월 0.391의 타율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명기와 막강 테이블세터진을 구성했다. 부지런히 출루하면서 21타점도 수확을 하는 등 뜨거운 공격의 전면에 서 있다. '캡틴'으로 부쩍 말수도 늘었다. 덕아웃에서 후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는 NC원정 3연패 이후 "우리 것만 하자"며 위기의 팀을 한대 묶으며 반전의 7월을 이끌었다.

# 3 더 샤크 버나디나



기대만큼 실망이 컸던 버나디나였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공·수·주에서 수준급 실력을 갖춘 '빅 리거'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KBO리그에 데뷔했지만, 변방이 험방방 이질을 하며 돌아서던 버나디나였다.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팬들은 버나디나의 '퇴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지금 버나디나는 2017 '미친 공격'의 한 축이다. '더 샤크'라는 애칭처럼 그는 멋있게 공을 낚아채고 시원하게 담장을 넘기고, 버락처럼 그라운드를 돈다. '뚝타자'로 영입했던 버나디나는 화끈한 방망이로 3번 타자로 클린업 트리오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12일까지 15개의 홈런을 날리며 최형우, 나지완에 이어 이름을 올린 그는 특유의 '헬멧 세러모니'로도 화제를 모은다. 머리를 짚고 자르면서 커져 버린 헬멧을 잡느라 시작했던 세러모니 아닌 세러모니다.

# 4 해결사 최형우



'최형우'라는 이름 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이 되는 4번 타자다. KBO리그 FA 사상 첫 100억 벽을 깬 그는 '100억 사나이'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3할-30홈런-100타점'을 올 시즌 최소 목표로 언급했던 최형우는 12일 경기까지 0.375의 타율과 함께 22홈런 81타점을 기록하면서 만점 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기록 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해결사 본능'이 최형우의 진가를 더하고 있다. 5월 13일 SK와의 원정에서 그는 9회 동점 홈런에 이어 연장 11회 역전 홈런을 터트리면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12일 NC와의 경기에서도 광주를 들쭉이게 했다. 연장 10회 5번째 타석에 서기도 전에 이미 솔로포 포함 3안타 경기를 했던 최형우는 NC 마무리 임창민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날리며 올 시즌 또 다른 명승부를 완성했다.



# 미친 공격력 "이게 실화다"

"이런 타자들을 상대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라는 투수들. "치고도 믿을 수 없다"는 타자들.

KIA 타이거즈의 전반기는 '매서운 창'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올 시즌 KIA의 화력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다. 김선빈·안치홍의 복귀 속 '빅 리거' 버나디나가 들어서면서 강화된 센터라인, '100억 사나이' 최형우까지 배치되면서 KIA는 소문난 타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역대급 화력이 전반기를 장식했다.

'3할'은 기본이 됐다. 타율 1위 김선빈을 필두로 최형우, 이명기가 10위 안에 포진했다. 안치홍, 나지완, 버나디나까지 6명의 3할 타자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팀 타율이 무려 0.310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된 선발진과 팀 내 홈런왕 싸움을 벌인 중심 타선의 한방으로 우승을 이뤘던 2009년과는 다른 폭발력이다.

1번 이명기를 시작으로 9번 김선빈까지 쉬어갈 곳 없는 타선이 상대를 압박한다. 치열해진 내부 경쟁에 KIA 선수들은 동료이자 경쟁자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고루 타지는 타선에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더해 KIA의 공격이 거침없다.

공격의 포문을 열고 있는 이명기는 "내가 못 쳐도 뒤에서 쳐주기 때문에 편하게 승부를 한다. 편하게 하다 보니깐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고, 김선빈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 서로 잘 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강화된 전력에 경쟁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KIA 팬들은 보고도 믿지 못할 경기들을 보며 환호를 하고 있다.

'캡틴' 김주찬은 "우리 마운드도 잘 해주고 있다. 불펜에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경험이 적으니까 자신감이 중요하다. 마운드가 못 해서 지는 날도 있고, 잘해서 이기는 날도 있을 것이다. 투수들이 실점하면 우리가 그 이상을 내주면 된다. 타자들이 못할 때는 마운드가 잘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5 거포본능 나지완



'모범 FA' 나지완이다. 4년 40억이라는 금액에 FA 계약을 하면서 '타이거즈맨'으로 남게 된 나지완. 올 시즌을 앞두고 나지완에게 핑크빛 미래가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최형우가 새로운 해결사로 KIA 외야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 시즌 좌익수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했던 김주찬의 벽도 넘어야 했다. 수비라는 약점에 묵묵히 경쟁하고 시즌을 준비했던 그는 하지만 특유의 꾸준함으로 프랜차이즈 행보를 하고 있다. 0.325의 타율과 함께 12일까지 16차례 담장을 넘기면서 자신의 시즌 역대 최대 홈런인 25개를 넘어 그 이상을 올려보고 있다. 최근 10경기 타율은 0.452에 이르고 있다. NC전 싹쓸이 3연패 이후 반전을 이룬 뜨거운 질주 속에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면서 순수 타이거즈 최다 홈런(207개) 고지로 전진하고 있다.

# 6 호타준족 안치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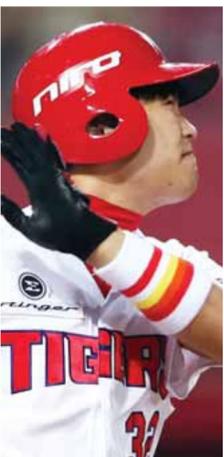
지난 가을의 아쉬움을 털어낸 안치홍이다. 경찰청에서 제대하자마자 팀에 합류했지만 부상 속, 부족했던 활약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스프링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김선빈과 호흡을 맞춘 그는 이내 예전 안치홍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선빈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KIA의 고민이었던 센터라인의 부족한 축을 채운 그는 타석에서도 자신감 있는 승부를 하며 안치홍을 연호하게 했다. 타선의 중심에 배치되어 폭발력을 극대화한 그는 0.333의 타율로 두 자릿수 홈런도 넘어서면서 공·수에서 제 몫을 해냈다. 뜨거운 전반기 마지막을 함께 하지는 못했다. 지난 7일 원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탈락되면서 조금 일찍 전반기를 끝냈다. 하지만 안치홍은 NC와의 전반기 최종전인 열린 13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훈련을 하며 후반기를 위한 위망업을 시작했다.

# 7 파워히터 이범호



김주찬과 지난 시즌 타선의 양축으로 활약했던 이범호. 하지만 두 절친의 봄날은 잔인했다. 동반 부진에 빠졌던 '전·현직 캡틴'은 나란히 2군에서 반전을 위한 칼을 갈았다. 허벅지 부상으로 2군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던 그는 익숙했던 중심자리에서 조금 물러나서 2017시즌을 보내고 있다. 7번 타자가 이범호에게 주로 주어진 임무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숨 막히는 7번 타자다. 클린업 트리오를 겨우 넘어가면 이범호가 버티는 또 다른 고난의 타선이 기다리고 있다. 극적인 순간에 해결사로서 역할도 했다. 5월 16일 LG와의 홈경기에서 그는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이 되면서 자신의 야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를 더했다. 이날 연장전 승부에서 기록된 이범호의 끝내기 안타로 KIA는 화요일 5연승에 성공했고, 12승 1패의 '화요일타이거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 8 안방마님 김민식



4월 7일 '깜짝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졌다. 한방 있는 안방마님 이흥규와 근성 있는 플레어로 팬들의 사랑을 받던 노수광이 포함된 SK와의 4대 4트레이드. 이 과감했던 트레이드의 핵심은 포수 김민식이었다. 센터라인의 완성도를 위해 트레이드라는 승부를 던진 김기태 감독의 계산은 적중했다. 김민식은 시즌 초반 레이지 송구로 발 빠른 상대의 발을 묶으면서 수비로 승리에 힘을 보탤 때. 공격적인 리드로 투수들을 이끌며 '신배터리'를 구성한 그는 포수로서는 빠른 발과 타석의 집중력으로 KIA의 1위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반기 김민식의 타율은 0.228에 그쳤지만 득점권에서는 다른 김민식이 서 있었다. 득점권에서 0.348의 타율을 기록한 김민식은 4개의 홈런도 터트리면서 32타점을 수확하는 등 알짜배기 활약을 하며 타이거즈의 안방 자리를 차지했다.

# 9 작은거인 김선빈



'작은 거인'이라는 애칭이 딱 어울리는 2017시즌 김선빈이다. 지난 시즌 상무에서 제대하고 본격적인 복귀 시즌을 맞은 그는 이렇다 할 부진도 없이 전반기 내내 매서운 방망이 실력을 과시했다. 밀어쳐서 안타를 만들어내던 예전의 김선빈이 아니었다. 당겨치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기도 하는 등 고루루 안타를 쏟아내면서 어느새 타율 1위까지 올랐다. '곧 내려올 자리'라던 김선빈의 웃음과 달리 처음 1위에 올랐을 때보다도 타율이 상승하면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팀의 4번 타자 최형우를 따돌리고 1위에 이름을 올려놓은 그는 수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특급 선수다.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혔던 플라이 타구 처리에서도 빈틈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화한 김선빈이 2017시즌을 달리고 있다. 5월 24일 한화 원정에서 손맛을 본 그는 홈런도 2개를 기록하고 있다.

# 10 유틸리티 서동욱



'알도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서동욱이다. 지난 시즌 무조건 트레이드로 넥센에서 친정 KIA로 돌아온 그는 제2의 야구 인생을 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매년 똑 같다. 늘 내 자리는 없었다'는 서동욱의 이야기처럼 그는 올 시즌에도 다시 새 출발선에 섰다. 전정타가 된 외야, 김주찬이 외야에서 1루로 이동하는 등 서동욱은 또 다른 경쟁에 직면했지만 멀티 플레이어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범호가 부상에서 빠졌을 때 3루수로도 나서 마저 익숙한 자리인 듯 실력 발휘를 하는 등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이곳저곳 배치돼, 전력 활용 폭을 넓혀 해주고 있다. 서동욱만의 야구 센스는 수비 장면과 주루에서도 엿볼 수 있다. 0.307의 타율로 3할 타자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된 그는 덕아웃에서는 등직한 베테랑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